

‘1초당 1000만원의 승부’ 보러 가자

총상금 20억원 해외경주마 초청대회 개최 기념 ‘퀴즈쇼·축하공연’ 등 풍성
렛츠런파크 무료입장…에코백 증정도

“땅을 울리는 경주마들의 발굽소리와 짜릿한 스피드… 가을 나들이로 국제 스포츠 경마대회 보러 오세요.”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9월 8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해외 경주마를 초청한 국제경주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를 개최한다. 한국 최고 총상금 20억 원을 놓고 글로벌 경주마들이 최강자를 가린다. 코리아컵 1800m, 코리아 스프린트의 1200m이며 경주 평균 기록이 둘 다 1분대로, 1초 당 약 1000만 원이 걸린 초대형 이벤트다. 선진 경마 시행국인 영국, 미국, 홍콩, 프랑스 경주마를 상대로 한국



해외 경주마 초청 대회 ‘코리아컵’ 포스터.

경주마들의 실력 발휘가 관전 포인트다.

풍성한 고객 이벤트는 가을 나들이의 재미를 더해준다. 한국마사회는 국제경주 시행을 기념해 9월 7일부터 2일간 다

양한 고객 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먼저 코리아컵의 화려한 로고를 활용해 포토존을 조성한다. 경마·승마 문화를 상징하는 영국 전통 모자와 웨스턴 스타일의 소품들을 무료 대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 인증하면 말인형, 경마 공일 무료입장권 등이 선물로 걸린 팽 없 는 스크래치 복권을 증정한다.

국제경주에 관련된 퀴즈쇼도 열린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제와 답이 그려진 판의 짝을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3번 기회 안에 성공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역대 코리아컵 우승마, 경주거리, 총상금 등이 문제로 출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된다. 투호, 제기차기, 대형 윷놀이 등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12시와 오후 2시, 4시에는 이벤트 담당 쇼맨과 겨뤄 승리하면 경품을 증정한다. 태권도 퍼포먼스, 난타 등 축하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국제경주를 기념해 이상원 현대미술 작가와 협업한 작품이 놀라운지에 전시된다. 이상원 작가는 달리기, 산책 등 일상 을 즐기는 군중을 그려온 작가로, 서울 곳곳의 미디어월을 통해 선보인 영상작업 ‘Patterns of life’로 잘 알려져 있다. 놀라운지 전시에서는 이번 협업을 통해 회화로 재현된 달리는 말과 기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국제경주 개최 당일인 8일은 렛츠런파크 서울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오전 9시 20분부터는 국제경주 로고가 그려진 에코백을 1만5000명에게 선착순 배부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코리아컵 역대 최강마, 美 ‘론세일러’ 납시오!

외국 출전마중 최고 레이팅
한국 경주마 ‘돌콩’ 대항마

국제경주 코리아컵에 세계 최정상급 경주마가 출전한다. 9월 8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열리는 국제경주 코리아컵에 국제 레이팅 112인 미국의 ‘론세일러(Lone Sailor)’가 참가한다.

‘론세일러’는 역대 코리아컵 외국 출전마 중 최고 레이팅이다. 이번 외국 출전마 중에서 가장 많은 총 21회 경주경험을 갖고 있다. 이 중 16회를 그레이드(Grade, 경마 대회 최상급에게 부여) 대상경주 출전일 정도로 큰 대회 경험도 매우 풍부하다. 올해에도 그레이드 대상경주에 5회 출전해 2위 2회, 3위 2회 등 기복 없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

관리하는 팀 또한 화려하다. ‘론세일러’의 마주는 NBA 뉴올리언스 소유주 게일 벤슨의 ‘GMB 레이싱’이다. NBA, NFL 등 미국 스포츠산업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의 애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뜨겁다. ‘론세일러’는 GMB 레이싱이 현재 보유한 경주마 중 가장 높은 상금을 획득해 단연 최강으로 손꼽힌다. 데뷔 후 누적 상금이 약 120만 달

러(화화 약 15억 원)로 이번 코리아컵 외국 출전마 중에서도 최고다.

조교사 토마스 에이머스는 데뷔 후 3500번의 우승을 기록한 미국 경마계의 슈퍼스타다. 1998년 캔터키 처칠다운 경마장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으며, 올해에도 약 16억 원의 상금을 획득하고 승률 23%를 기록하는 등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론세일러’에 맞설 한국 경주마는 ‘돌콩’이다. ‘돌콩’은 지난해 제3회 코리아컵에도 한국 대표로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상승세가 뚜렷해 올해는 우승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평이다. 올해 초 세계 4대 경마 대회 중 하나인 두바이 월드컵에 출전해 예선 경주에서 우승했다. PART I 경마 강대국 사이에서 PART II 국가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결승 진출까지 성공하며 한국 경마를 세계에 알렸다. 현재 한국 경주마 중 최고 국제 레이팅 108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론세일러’와 ‘돌콩’의 대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코리아컵 출발 번호 추첨이 5일 진행됐다. ‘론세일러’는 3번을 배정받아 무난하다는 평이지만, ‘돌콩’은 10번을 배정받아 경주 전략에 다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용운 기자



국제경주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미국 경주마 ‘론세일러’는 국제 레이팅 112로 역대 코리아컵 외국 출전마 중 가장 높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야구팬 “KT 2~3점, KIA 4~5점 1순위”

야구토토 스페셜 99회차 중간집계

케이토토는 “6일 열리는 2019시즌 한국 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99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48.34%가 KT-KIA(2경기)전에서 원정팀 KIA의 근소한 우세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홈팀 KT의 승리 예상은 37.73%로 나타났다.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3.93%를 기록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KT(2~3점)-KIA(4~5점)가 5.14%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KT(2~3점)-KIA(8~9점)과 KT(0~1점)-KIA(2~3점)가 각각 4.63%와 4.46%로 그 뒤를 이었다.

KT와 KIA가 맞대결을 펼친다. 현재 리그 6위에 올라있는 KT(62승2무64패)는 5위 NC(62승1무62패)와 포스트시즌 진출을 놓고 1게임차의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바로 뒤에 위치한 7위 KIA(56승2무69패)는 KT와 5.5게임차를 보이고 있다.

리그 순위가 앞서는 KT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10승4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중 KT는 안방에서 펼쳐진 6경기에서도 5승1패를 차지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단, 최근 경기를 살펴보자면 KIA의 연승과 KT의 연패에 눈길이 간다. 먼저, KIA는 지난 8월 30일 NC전부터 9월 4일 한화전까지 5경기에서 모두 승리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플레오프 진출을 노리는 KT는 NC를 따라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2연패로 추락했다.

양 팀의 상대전적에서 KT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5연승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KIA의 강력한 마운드가 또 다시 위력을 발휘한다면, 2연패로 침체되어 있는 KT에게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다분한 경기다.

LG-롯데(1경기)전에서는 롯데의 승리예상이 50.77%를 차지했고, LG의 승리예상은 36.11%를 기록했다. 두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3.12%로 가장 낮았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LG(4~5점)-롯데(6~7점)가 5.59%로 최다를 기록했다.

마지막 키움-삼성(3경기)전에서는 삼성 승리 예상(51.18%), 키움 승리 예상(36.74%)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2.08%) 순이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키움(2~3점)-삼성(10+점)이 5.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케이토토, WKBL 대상 부정방지 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이 발령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국내여자프로농구(WKBL)을 대상으로 부정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내 프로스포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케이토토에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에 금호설악리조트 대청홀에서 WKBL 6개 구단 감독을 비롯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140명을 대상으로 부정방지 교육을 펼치고 더욱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한 스포츠정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승부조작과 더불어, 불법스포츠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칫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체육진흥법 관련 법률과 정보 등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선수배 등 지인들을 대동해 선수들에게 접근하는 불법스포츠도박 브로커의 교묘한 수법과 승부조작과 불법도박으로 몰락한 스포츠 선수들의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교육에 참가한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이번 부정방지 교육은 WKBL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참여 덕분에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케이토토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토토 쉽니다

9월 9~15일 일시 발매 휴식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하 스포츠토토)의 매출충량을 준수하기 위해 추석 연휴가 포함되는 오는 9월 9일 0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7일간 일시 발매 휴식에 들어간다. 발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될 예정이지만, 발매휴식 기간 동안 환급을 비롯해 환불과 고객센터 등의 업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발매 휴식은 고향을 찾아가는 등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추석 연휴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 기간을 통해 판매점주들 또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발매 휴식을 통해 케이토토에서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건전화 정책 ‘사행산업 매출충량제한제도’를 준수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발매휴식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체육진흥투표권 합법 인터넷 발매사 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경마

11

2019년 9월 6·7일 주말판

스포츠동아